

제 14 차 대한두경부종양학회

■ 연 제 초 록 ■

1

두경부에 발생한 다발암에서 일차암과 이차암의 p53, mdm2, nm23 및 TGF α 의 발현양상

송중석* · 최 건 · 최성원 · 정광운 · 최종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배 경 : 이차암의 발생은 두경부암에서 중요한 종양 생물학적 특성이다. 이차암은 임상적으로 일차암과 동시에 발견되는 동시기암과 일정기간 후에 발생하는 이 시기암으로 나눌수 있는데 과거에는 field cancerization의 개념으로 설명했지만 최근에 세포변형이 있는 후 변형된 클론의 산물이 점막을 통해 퍼져 원발 종양에서 떨어져 있는 부위에 동일한 클론의 이차암이 성장한다는 공통 클론 기원(common clonal origin)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어 이차암의 발생기전과 일차암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목 적 : 일차암과 이차암에서 종양의 발생과 성장 및 전이와 관련있는 단백질인 p53, mdm2, nm23, TGF α 들의 발현양상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두경부 다발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6명의 환자중 파파린 포배조직이 이용이 가능한 12조직(동시기암 3례와 이시기암 3례)을 대상으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실시하여 p53, mdm2, nm23, TGF α 단백질의 발현을 검색하였다.

결 과 : p53은 총 12조직 중 6조직(50%)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일차암과 이차암 모두에서 발현된례는 2례(33.3%), 모두 음성인례는 2례(33.3%), 일차암에서만 발현된례는 1례(16.6%), 이차암에서만 발현된례는 1례(16.6%)였다. mdm2는 10조직(83.3%)에서, nm23은 10조직(83.3%)에서, TGF α 는 11조직(91.7%)에서 양

성을 보였으나 일차암과 이차암사이에서 발현양상의 상관관계는 없었다.

결 론 : 일차암과 이차암에서 p53, mdm2, nm23, TGF α 들의 발현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향후 더 많은 증례와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2

두경부종양 표지자로서 bFGF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최진호* · 심윤상 · 오경균 · 이용식
김승태 · 박범정

원자력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서론 및 목적 : 신생 혈관형성 유발과 유사분열 촉진 기능을 가진 bFGF(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는 여러암종에서 종양표지자로서의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두경부영역 종양에 대한 종양표지자로서 bFGF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6년 3월에서 1997년 6월 사이에 본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에서 두경부영역의 종양으로 진단 받고 본 연구에 등록된 123명의 환자와 정상대조군 32명의 혈중 bFGF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 악성종양군에서는 55%(56/101)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양성종양군에서는 56%(5/9), 정상대조군에서는 6%(2/32)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cut off value : 7pg/dl). 악성종양군과 정상대조군의 혈중 bFGF치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5$), T 병기나 N 병기에 따른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치료 전후의 비교에 있어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위 기간중 치료